

# “보스가 될 것인가, 리더가 될 것인가...가장 핵심적인 것은 겸손”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강연 세계절출판사 강말실 대표

### 회사나 조직은 경직되고 멈춰 있어서는 안돼 직원들 발상 중요... 창의력은 자유로움서 나와 리더 핵심적 역할은 변화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

“보스가 될 것인가, 리더가 될 것인가의 가장 핵심은 겸손입니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 호텔에서 지난 3일 열린 ‘광주일보 제6기 리더스아카데미’ 강사로 세계절출판사 강말실 대표가 나섰다.

강 대표는 이날 원우들에게 30년 경력의 여성 CEO로서, 그동안 회사를 경영하며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것들을 나눴다.

“고인 물보다 흐르는 물이 맑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나 조직은 경직되고 멈춰있어서 안 됩니다.”

그는 무엇보다 부하 직원이나 동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뾰족 깊은 곳에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즉 진실된 감정으로 느끼고 있는지 말이다.

강 대표는 평소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쉽게’ 보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술 자리에

서도 누나나 언니처럼 편하게, 본인 스스로 엄숙함을 견디질 못해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 직원 중 한 명이 ‘엘로우 카드’(경고)를 날린다.

“직원들의 발상이 중요합니다. 주눅 들어서는 절대 개인의 기량을 펼칠 못합니다. 창의력은 자신의 자발적 자유로움에서 나온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는 또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 대표는 “일을 하다가 보면 잘못과 실수를 할 수 있다”며 “화를 내거나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직원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다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잘못을 한 직원에 대해 개인의 성향과 사정, 상황에 맞춰 필요한 만큼의 지적과 위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회사의 비전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시가 아니라 공유와 자발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회사의 비전은 지시를 통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직원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래야 효율성이 더 커진다고 했다.

“하루하루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죠. 해결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제 삶을 타리 속에 그려보면 마치 거대한 파도를 타고 있는 모습, 내 앞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압박감, 때론 그 파도를 혼자 짊어지고 싶을 충동을 느끼곤 합니다.”

회사의 대표, 조직의 리더는 늘 강한 압박감을 느낀다. 리더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빠르게 바뀌는 ‘변화’를 미리 감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나가는 것이다.

1982년 사회과학 출판으로 시작한 세계절출판사는 1990년대 시대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다. 90년대 초 당시



강말실 대표



지난 3일 열린 제6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강연에서 강말실 세계절출판사 대표가 강연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읽을 책이 없었던 시절이다. 전집류 책이 전부였던 그때 세계절출판사는 업계의 비판적 전망에도 ‘누가 내 머리 똥’이었어, ‘반갑다 너리아’, ‘교실과학 시리즈’ 등 새로운 류의 책을 출판했다.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책을 마련, 과감

한 결정을 내렸고 업계의 예상과 달리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 당시 가장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때로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게 리더의 역할 아닐까

요?”

강 대표는 마지막으로 “내가 직원을 먹여 살린다는 게 아니라 직원을 덕분에 사장인 내가 먹고 산다는 생각이 필요하다”며 “관점이라는 건 종이 한 장 차이다”고 강조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손보협회 호남본부 교통안전물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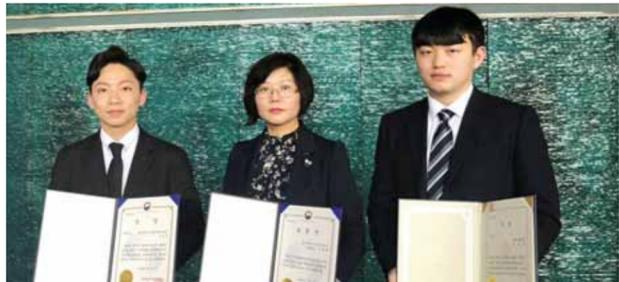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본부장 김양식·사진 오른쪽)는 경찰청의 ‘보행자 사망 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을 위해 노인 등 교통약자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통안전물품을 강진경찰서(서장 이혁)에 전달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 MG광양시 새마을금고 이사장배 배드민턴대회



최근 광양시 실내체육관에서 1500여 명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MG광양시 새마을금고 이사장배 및 클럽최강전 배드민턴대회’가 열렸다. <MG광양시 새마을금고>



## 광주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사업단 장관상

### 중기 수출 활성화 공로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GTEP)사업단이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공로 등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한국무역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사진>

광주대 GTEP사업단 소속 고유현(신문방송학과 4년) 학생은 최근 서울 코엑스에

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열린 ‘GTEP사업단 11기 수료식 및 12기 발대식’에서 산자부 장관상을 받았다.

사업단 김현희 지원팀장도 효율적인 사업단 운영 공로를 인정받아 산자부 장관상을, 송정근(외국어학부 4년) 학생은 무역협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전남방무청, 어린이 그림·글짓기 공모전

광주전남지방방무청은 어린이들이 병역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군 장병을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8회 어린이 그림·글짓기’ 공모전을 실시한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 주제는 “A Little hero”가 전하는 나라사랑 마음이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참여기간은 오는 5월

25일까지이며, 응모자격은 국내 초등학교 3~6학년, 해외 한인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그리고 동 연령대 흡스쿨링 청소년이다.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는 광주전남지방방무청 운영지원과(문의 062-230-4420)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학교에서 요청 시 방무청에서 학교를 방문해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한국시인협회장에 윤석산 시인 취임

윤석산(71·사진) 시인이 최근 열린 한국시인협회 정기총회에서 제42대 한국시인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윤 시인은 1967년 중앙일보 신춘문에 동시 부문, 1974년 경향신문 신춘문에 시 부문에 당선돼 등단했다. 한양대 국문과 교수로 오랫동안 강단에 섰고 지금은 이 대학 명예교수다.

시집으로 ‘바다 속의 램프’, ‘운달의 꿈’, ‘차용의 노래’, ‘울랄 가는 길’, ‘밭 나이, 잡 나이’, ‘나는 지금 운전 중’ 등을 냈다.

윤 시인은 취임 인사로 “한국시인협회



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면서 시인들의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단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시가 본래의 서정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독자와 함께할 때에 비로소 새로운 생명력을 지닐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이달의 유공자 故 허봉씨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가 4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고(故) 허봉(당시 24세·사진)씨를 선정했다.

1956년 광주에서 태어난 허씨는 어머니와 5남매의 생계를 위해 이발사로 일하고 밤에는 동생 오제씨와 들불야학을 다녔다.

신군부의 독재정치와 인권유린을 알게 된 그는 동생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 허씨는 시민군에 합류해 계엄군과 치열한 교전을 펼치다 행방불명됐다.

동생 오제씨는 행방불명된 형의 행방을 수소문한 끝에 조선대학교 뒷산에서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 오제씨는 이후 5·18 청년동지회에 가입해 형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5·18 묘지관리소는 5·18민주유공자들의 송고한 회상과 공헌을 재조명하고 5·18 정신을 알리기 위해 매달 이달의 유공자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김희화기자 kimyh@kwangju.co.kr>

## 인사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 ▲조직국장 박민진 ▲지방자치국장 송진원 ▲직능국장 정대진 ▲공보국장 변중섭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 화측

▲이홍재(광주일보 주필)씨 장남 종욱 군 윤병훈·김경희씨 장녀 나라양=14일(토) 오후 6시 광주시 농성동 라페스타 2층 열루체.

▲이영희(前 광주공원관리 사무소 소장)·조유림씨 차남 재환군 고인식·박지람씨 장녀 민지양=28일(토) 오후 2시30분 웨딩헤너스 2층 그랜드 홀(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61(위경동267-9) 피로연 4월 13일(금) 오후 6시 켈러리아나 3층(광주시 서구 농성동 417-10).

### 중진회

▲진주 정씨 호남중진회(회장 정찬섭) 창립 50주년 기념 및 85차 정기총회=12일(목) 오전 10시30분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진주정씨중진회관 총무이사 정지영 010-9780-6607.

▲나주 정씨 대중회 제64회 정기총회=14일(토)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운암동 아델리아교회 총무국장 정삼동 010-

8607-2062.

###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

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양택, 음택, 수택, 내경/입향론, 비결명당, 장법요강등이론과현상 24일(토) 오후 1시30분~5시 광주대 호심기념도서관 5층 010-3609-811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모집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제2기 웹진 기자단 모집=평생교육 및 학습, 문화, 사회공헌 등에 관심있는 시민 10명 누구나 참여가능, 활동기간 1년, 위촉장 및 기자증 발급, 기자단 특강, 소정의 원고료 지급, 홈페이지(www.gie.kr) 공지사항 참고 062-600-522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

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

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

**삼가 故 人 의 冥 福 을 빚 니 다**

<b>201호 故 나혜자 님(여/65세)</b> 子/子婦: 유지환/서미경, 서준, 승준 夫君: 유규석 *발 인: 4월 5일 *장 지: 보성동지회 *연락처: 227-4381	<b>301호 故 조순복 님(여/86세)</b> 子/子婦: 나화수/김혜진, 명수/김혜진 女/婿: 나원숙/유대석 孫: 나은진, 은애, 은중, 사은, 유재욱, 지애 *발 인: 4월 6일 *장 지: 영락병원 *연락처: 227-4382
<b>401호 故 정영순 님(여/79세)</b> 子/子婦: 박상수/민진숙 女/婿: 박광희/조금근, 선희 孫: 박세현, 고영은, 조수빈 夫君: 박 현 *발 인: 4월 5일 *장 지: 문인정사(화정) *연락처: 227-4383	<b>402호 故 이종부 님(남/68세)</b> 子/子婦: 이선영/지선화 女/婿: 이나영/김봉래 孫: 김안용, 초린, 이리은 *발 인: 4월 6일 *장 지: 보성동덕 *연락처: 227-4314
<b>101호 故 김경자 님(여/80세)</b> 子/子婦: 황정돈/김민희 女/婿: 황인재/오영근, 황순이/김중, 황순경/김현, 박승/조영근, 오남 孫: 황승현, 태현, 이은영, 민지, 오상욱, 강아라, 박호철 *발 인: 4월 5일 *장 지: 목포선영 *연락처: 227-4385	<b>102호 故 이판식 님(남/74세)</b> 子/子婦: 이영환/김연옥, 명수/김순희 兄弟: 이관승, 판선 孫: 이은민, 현서, 현우, 현지 未亡人: 박순라 *발 인: 4월 5일 *장 지: 영락병원 *연락처: 227-4000

**함께 할 10년, 함께 할 100년 금호 장례식장** 062-227-4000 www.mykumho.com

### 부음

▲박명남씨 별세 김현철(동강대 법인 상임이사)씨 모친상 이민숙(동강대 총장)씨 시모상=발인 6일(금)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5분향실 02-2258-5940.